

## 영아 · 어머니 ·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The Early Adaptation of Infants at Child Care Cent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s,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이정희(Jeong-Hee Lee)<sup>1)</sup>

박은주(Eun-Ju Park)<sup>2)</sup>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y differences which exist in the early adaptation of infants at child care cent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s themselves, their mothers and their child care teachers. The subjects consisted of the infants themselves, their mothers, and teachers at 11 child care centers in Chung-nam and Daejeon cities.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the PAQ (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and questionnaires regarding the rearing attitudes of the mothers. For the purpose of data analysis, a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the early adaptation of infants according to their ages and their length of experience in child care centers. Seco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arly adaptation of infants according to the child rearing attitudes of the mothers and between unemployed mothers and the employed mother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arly adaptation of infants according to the child care teachers' level of career experience and their ages.

**Key Words** : 영아(Infants), 어린이집 초기적응(Early Adaptation at Child Care Center), 보육교사(Child Care Teachers).

---

\* 본 논문은 2012년도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1)</sup> 연정어린이집 교사

<sup>2)</sup> 침례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n-Ju Park,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San 14, Hagi-dong, Yuseong-gu, Daejeon 305-358, Korea  
E-mail : ejpark@kbtus.ac.k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의 발달로 1인당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이 증가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증가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4년간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배로 증가하였는데,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0’에 따르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4년 11.2%에서 2009년 33.5%로 늘었고,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도 같은 기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EBS News, 2010.12.03). 따라서 이른 나이에 보육시설에서 낯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적응해야 하는 영아들이 많아지고 있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영아들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실정이다.

적응(adjustment)이란 생태학적인 용어로 유기체가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생존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유아교육관점에서의 적응 개념을 살펴보면, 적응이란 영유아가 환경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상태로(Son, 2001), 영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환경에 참여하는 것(Kim, 2009)을 뜻한다. 따라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란 ‘영아가 어린이집 내에서 자신에게 놓인 물리적·심리적 환경에 순응하면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어린이집 초기적응이란 영아가 처음 보육시설에 들어와서 보이는 행동을 기초로 하여 보육시설 환경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

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으로는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적응이 있다(Kim, 2010; Shin, 2011; Song, 2007).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영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한 후 혹은 상위연령의 반에 진급한 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영아로 하여금 집단생활을 즐기게 하고,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도록 해주며, 자아존중감과 확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영아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집단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적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Kim, 1995).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초기적응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새로운 집단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의 기초 마련 등 바람직한 발달을 이루어 간다는 점(Jang, 2008)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학습의 기회를 방해받을 뿐만 아니라(Fernandez & Marfo, 2005), 영아기 이후의 유치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갖게 된다(Kim & Lee, 2010). 즉, 영아들에게 있어 어린이집 초기적응 경험은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사회발달 및 이후의 새로운 집단생활 적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경험하도록 영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영아의 초기적응을 돕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관련변인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Kim, 2009; Kim & Lee, 2010; Lee, 2010). 첫째, 영아의 개인적 특성으

로, 영아의 성별, 연령, 기질, 보육기관 경험 등이다. 둘째, 부모의 특성으로, 부모의 학력, 취업 유무, 양육태도 등이다. 셋째, 보육교사와 보육 환경으로, 교사수준, 보육프로그램의 질 등이다. 이러한 영아의 개인적 특성, 부모의 특성, 보육 교사의 특성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초기적응에 중요한 변수로서(Lim & Kang, 2007),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영아의 성별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적응을 잘한다고 한 연구들(Kim, 2009; Kim, & Moon, 2011; Yang, 2010)이 있고, 성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 연구들(Baek, 1996; Oh, 2001; Lee, 2010; Lee & Cho, 2009)도 있다. 영아의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을 더 잘한다고 한 연구들(Baek, 1996; Kim, 2009; Kim, & Moon, 2011; Lee & Cho, 2009; Oh, 2001)이 있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고 한 연구(Yang, 2010)도 있다. 영아의 기질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낮은 활동수준 및 반응강도와 높은 지구성을 보인 영아일수록 적응능력이 높았다는 연구들(Jang, 2008; Jun, 2003; Lee & Cho, 2008)과 기질(사교성)이 영아의 기관적응행동을 가장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한 연구(Seo, 2009)가 있다. 영아의 보육기관 경험에 있어서는 기관경험이 있는 영아가 없는 영아에 비해 적응을 잘한다고 한 연구들(Lee, 2010; Lee & Cho, 2009)과 경험기간이 길수록 적응을 잘한다고 한 연구(Baek, 1996)가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남아보다는 여아, 연령이 낮은 영아보다는 높은 영아, 순한 기질을 가진 영아, 보육기관 경험을 지닌 영아가 적응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력에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영아의 적응능력이 높다고 한 연구(Lee, 2004)와 부모의 학력이 영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 연구(Baek, 1996)가 있다. 부모

의 취업유무에 있어서는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어린이집 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Kim, 2009)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초기적응 간에는 상관이 없다고 한 연구(Jang, 2008)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애정적,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경우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에 비해 영아가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Kim, 2009; Lee, 2004; Lee, 2010),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영아의 적응과 정적상관이 있다고 한 연구(Choi, 2011),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들이 영아의 적응과 부적관계가 있었다고 한 연구(Kim, & Moon, 2011)가 있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한 연구(Yang, 2010)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 연구결과들(Kim & Lee, 2010; Lee, 2004)도 있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할 때 대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높고,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에 영아의 적응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특성 중 학력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력이 낮을수록 영아가 적응을 잘한다고 한 연구(Hyun & Tae, 2000)와 학력에 따라 영아의 적응에 차이가 없었다고 한 Baek(1996)의 연구가 있다. 보육교사의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영아들의 적응능력이 높다고 한 연구(Hyun & Tae, 2000)가 있고, 경력에 있어서는 경력이 길수록 영아의 적응능력이 높다고 한 Baek(1996)의 연구가 있다. 요약하면, 대체적으로 보육교사의 학력과 연령이 낮고 경력이 길수록 영아의 적응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영아의 연령에 따른 초기적응을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른 초기적응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영아기는 월령에 따라 발달수

준의 차이가 큰 시기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월령별 적응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영아의 보육기관 경험 유무에 따른 초기적응을 살펴보거나 혹은 1년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경험기간에 따른 적응수준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육기관 경험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영아의 적응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전보육기관 경험을 지닌 영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적응관련 선행연구들은 만3세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Smith, 1990; Jang, 2003; Won, 1990),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경우 영아의 적응에 있어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 변인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영향력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보육교사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여러 선행연구들(Kim, 2009; Kim & Lee, 2010; Lee, 2010)에서 밝히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영아의 적응수준을 살펴본 연구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영아의 어린이집 취원율의 증가로 영아가 기관에서 보육교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이 영아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있으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개인적 특성(성별, 월령, 보육기관 경험기간)과 어머니의 특성(양육태도, 취업유무), 그리고 보육교사의 특성(경력, 연령, 학력)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기관의 적응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적응관련 변인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영아의 특성(성별, 월령, 보육기관 경험기간)에 따라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2) 어머니의 특성(양육태도, 취업유무)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3) 보육교사의 특성(경력, 연령, 학력)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권과 대전광역시 소재한 11개의 어린이집에 취원한 영아들과 그들의 어머니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들의 성별 및 월령별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영아의 성별에서 남아가 51.1%, 여아가 48.9%, 그리고 남아의 평균월령은 31.80개월, 여아의 평균월령은 31.33개월로 유사하였다. 월령은 12개월 이상에서 31개월 미만인 3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1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33.9%), 그리고 36개월 이상(30.0%)이었다.

1)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초기적응의 개념을 기관(어린이집)뿐 아니라 새로운 교실에서의 적응까지 확장하여 보았으므로, 기관에 새로 입소한 신입영아들 및 상위연령의 학급에 진급한 재원영아들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fants

Variable		N(%)	Mean age of the moon
Gender	Boy	92(51.1%)	31.80
	Girl	88(48.9%)	31.33
Infants	From 12 month to 30 month	65(36.1%)	25.45
	From 31 month to 35 month	61(33.9%)	32.87
	36 month and over	54(30.0%)	37.48

<Table 2> The measuring instrument of infants' early adaption

Variable	Question number	Total number	Cronbach's $\alpha$
Prosocial behavior	1, 2, 3, 4	4	.794
Positive emotion	5, 6, 7, 8, 9	5	.817
Peer relations	10, 11, 12, 13, 14	5	.850
Ego strength <sup>2)</sup>	15, 16, 18, 19	4	.858
Adaptation of daily tasks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	.815

## 2. 연구도구

### 1) 영아의 초기적응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아 초기적응을 측정하고자, Jewsuwan, Luster, Kostelink(1993)이 개발한 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연구자가 직접 번안한 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AQ는 유아를 대상으로 만든 도구이나 국내에서 영아들을 대상으로 초기적응을 측정한 연구들(Oh, 2001; Park, 2000)에서 검사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 받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3년 이상 영아반 교사를 한 교사 2인, 그리고 현재 영아반을 담당하는 영아반 교사 3인에게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문항내용이 영아의 초기적응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한 내용인지, 대표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를 검토하

였고, 또한 초기적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영아반에서 4주간 영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검사도구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22로,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초기적응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양육태도를 제작한 Lee(1985)의 양육태도 검사 도구를 Kim(2004)이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검사문항은 양육태도(애정적 태도, 통제적 태도, 자율적 태도, 거부적 태도)별로 각각 12문항씩 총 48문항이다.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1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유형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2) 참고로, 자아강도 영역에서 17번 문항이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삭제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lt;Table 3&gt; The questionnaire of mother's rearing attitudes

Variable	Question number	Total number	Cronbach's $\alpha$
Affectionate attitude	3, 4, 14, 16, 17, 19, 29, 30, 31, 32, 33, 34	12	.808
Rejective attitude	1, 2, 11, 12, 13, 15, 38, 39, 40, 41, 42, 43	12	.808
Self-regulating attitude	8, 9, 10, 18, 20, 21, 22, 44, 45, 46, 47, 48	12	.651
Controlled attitude	5, 6, 7, 23, 24, 25, 26, 27, 28, 35, 36, 37	12	.675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충청권에 소재한 어린이집 2곳을 선정하여 교사를 통해 양육태도 질문지를 어머니들에게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14부에 한해 교사가 초기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해 영아의 적응을 측정하였다. 14명 영아의 어머니들이 체크한 질문지와 만1세와 만2세반 교사 3명이 체크한 응답지에 대해 3년 이상 영아반 교사를 한 교사 1인에게 피드백을 얻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등은 수정,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유아교육전문가 1인에게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1년 3월 31일부터 4월 26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었다. 참고로, 영아의 초기적응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Hea, 2010; Kim, 2010; Jun, 2003)에서 3월 4주부터 4월 3주까지를 중심으로 영아의 적응정도를 측정한 바 있다. 연구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과 교사들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초기적응 검사도구는 교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어머니 양육태도 질문지는 교사를 통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여 어머니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후 교

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회수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고 이외에는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연구자는 초기적응 검사지와 양육태도 질문지 각각 206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였다. 이중 초기적응 검사지는 199부(97%), 그리고 양육태도 질문지는 187부(91%)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한 초기적응 검사지 180부, 양육태도 질문지 180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성별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영아의 월령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 그리고 영아의 보육기관 경험 기간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계를 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수(5개 이하)를 가진 거부적-자율적 및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를 제외하고,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보육교사 경력과 학력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보육교사 연령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2.99, 자아강도는 남아가 2.81, 여아가 2.83, 일과에 대한 적응은 남아와 여아가 모두 3.26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모든 영역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 여아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적응수준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III 결과분석

#### 1. 영아의 특성(성별, 월령, 보육기관 경험 기간)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

##### 1)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영역 중 친사회적 행동은 남아가 2.82, 여아가 2.94, 긍정적 감정은 남아가 3.04, 여아가 2.95, 또래관계는 남아가 2.93, 여아가

##### 2) 영아의 월령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

영아의 월령<sup>3)</sup>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영아의 월령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영역 중 친사회적 행동은 36개월 이상이 3.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이 2.88, 12개월 이상에서 31개월 미만이 2.66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8.46, p < .001$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긍정적 감정은 36개월 이상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개월 이상에서 31개월 미만이 2.94, 31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이 2.88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3.95, p < .05$ )으로

<Table 4> The difference in the infants' early adaption according to their gender

Variable	Gender	N	M	SD	t
Prosocial behavior	Boy	92	2.82	.67	-1.30
	Girl	88	2.94	.60	
Positive emotion	Boy	92	3.04	.67	.87
	Girl	88	2.95	.67	
Peer relations	Boy	92	2.93	.65	-0.91
	Girl	88	2.99	.65	
Ego strength	Boy	92	2.81	.71	.23
	Girl	88	2.83	.71	
Adaptation of daily tasks	Boy	92	3.26	.54	.00
	Girl	88	3.26	.54	

3) 영아의 월령을 '12개월 이상에서 31개월 미만, 31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의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한 이유는 보다 정확한 통계결과를 위해 사후분석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서기를 기준으로 할 때, 2008년 5월 31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태어난 영아들은 36개월 이상에 해당되지만 만 2세반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대상에 함께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lt;Table 5&gt; The difference in the infants' early adaption according to their age of the moon

Variable	Infants' age of the moon	N	M	SD	F	Scheffé
Prosocial behavior	From 12 month to 30 month(a)	65	2.66	.60	8.46***	c > b > a
	From 31 month to 35 month(b)	61	2.88	.66		
	36 month and over(c)	54	3.13	.58		
	Total	180	2.88	.64		
Positive emotion	From 12 month to 30 month(a)	65	2.94	.65	3.95*	c > a, b
	From 31 month to 35 month(b)	61	2.88	.73		
	36 month and over(c)	54	3.21	.59		
	Total	180	3.00	.67		
Peer relations	From 12 month to 30 month(a)	65	2.75	.57	8.03***	c > a, b
	From 31 month to 35 month(b)	61	2.96	.67		
	36 month and over(c)	54	3.21	.60		
	Total	180	2.96	.64		
Ego strength	From 12 month to 30 month(a)	65	2.75	.64	3.19*	c > a, b
	From 31 month to 35 month(b)	61	2.71	.78		
	36 month and over(c)	54	3.02	.69		
	Total	180	2.82	.71		
Adaptation of daily tasks	From 12 month to 30 month(a)	65	3.17	.52	3.54*	c > a, b
	From 31 month to 35 month(b)	61	3.23	.58		
	36 month and over(c)	54	3.42	.47		
	Total	180	3.26	.54		

\*\*\* $p < .001$ . \* $p < .05$ .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래관계는 36개월 이상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이 2.96, 12개월 이상에서 31개월 미만이 2.75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8.03$ ,  $p < .001$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강도는 36개월 이상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개월 이상에서 31개월 미만이 2.75, 31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이 2.71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3.19$ ,  $p < .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일과에 대한 적응은 36개월 이상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이

3.23, 12개월 이상에서 31개월 미만이 3.17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3.54$ ,  $p < .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36개월 이상의 영아는 다른 군에 비해 보다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긍정적 감정을 보이며,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자아강도가 높으며, 일과에 잘 적응함으로써 전체적인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가 36개월 이상이 되면 기관에의 적응능력이 이전보다 유의미하게 발달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영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

데, 이는 영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또래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됨으로써 기관적응을 잘 하게 됨을 의미한다.

3) 영아의 보육기관 경험 기간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

영아의 보육기관 경험 기간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 및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영아의 보육기관 경험기간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영역 중 친사회적 행동은 7개월에서 13개월 미만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개월 이상이 2.89,

1개월에서 7개월 미만이 2.60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4.85, p < .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긍정적 감정은 7개월에서 13개월 미만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개월 이상이 2.96, 1개월에서 7개월 미만이 2.60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6.24, p < .01$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래관계는 7개월에서 13개월 미만이 3.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개월 이상이 3.00, 1개월에서 7개월 미만이 2.76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4.48, p < .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강도는 7개월에서 13개월 미만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개월 이상이 2.82, 1개월에서 7개월

<Table 6> The difference in the infants' early adaption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period of child care center

Variable	Experience period of child care center	N	M	SD	F	Scheffé
Prosocial behavior	From 1 month to 6 month(a)	21	2.60	.52	4.85*	b > c > a
	From 7 month to 12 month(b)	27	3.11	.53		
	13 month and over(c)	16	2.89	.62		
	Total	64	2.89	.58		
Positive emotion	From 1 month to 6 month(a)	21	2.60	.82	6.24**	b > c > a
	From 7 month to 12 month(b)	27	3.31	.58		
	13 month and over(c)	16	2.96	.65		
	Total	64	2.99	.74		
Peer relations	From 1 month to 6 month(a)	21	2.76	.71	4.48*	b > c > a
	From 7 month to 12 month(b)	27	3.30	.56		
	13 month and over(c)	16	3.00	.59		
	Total	64	3.05	.65		
Ego strength	From 1 month to 6 month(a)	21	2.54	.77	3.28*	b > c > a
	From 7 month to 12 month(b)	27	3.07	.63		
	13 month and over(c)	16	2.82	.71		
	Total	64	2.83	.73		
Adaptation of daily tasks	From 1 month to 6 month(a)	21	3.06	.53	4.28*	b > c > a
	From 7 month to 12 month(b)	27	3.46	.46		
	13 month and over(c)	16	3.23	.43		
	Total	64	3.27	.50		

\*\* $p < .01$ . \* $p < .05$ .

미만이 2.54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3.28, p < .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일과에 대한 적응은 7개월에서 13개월 미만이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개월 이상이 3.23, 1개월에서 7개월 미만이 3.06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4.28, p < .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7개월에서 13개월 미만의 보육기관 경험을 지닌 영아들은 1개월에서 7개월 미만, 그리고 13개월 이상의 보육기관 경험을 지닌 영아들에 비해 보다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보이며,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자아강도가 높으며, 일과에 보다 잘 적응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이전 보육시설 경험이 반 년 이하이거나 1년 이상인 경우보다 6개월 이후에서 1년 이하인 경우에 영아가 기관에 더 잘 적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어머니의 특성(양육태도, 취업유무)에 따른 영아의 초기적응

### 1)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7과 같다.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의 모든 영역들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초기적응 점수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인 경우에 영아의 초기적응 평균은 3.01, 애정적-통제적인 경우에 영아의 초기적응 평균은 2.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수준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8과 같다.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의 모든 영역들에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수준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The difference in the infants' early adaption according to their mothers' rearing attitudes

Variable	Affectionate-self regulating( $N = 85$ )		Affectionate-controlled( $N = 87$ )		$t$
	$M$	$SD$	$M$	$SD$	
Prosocial behavior	2.93	.64	2.83	.63	.98
Positive emotion	3.01	.65	3.02	.67	-.17
Peer relations	2.99	.63	2.93	.64	.64
Ego strength	2.86	.74	2.78	.68	.73
Adaptation of daily tasks	3.27	.53	3.26	.55	.14
Total	3.01	2.97	2.97	.54	.56

<Table 8> The difference in the infants' early adaption according to the unemployed mothers and the employed mothers

Variable	The unemployed mothers and the employed mothers	<i>N</i>	<i>M</i>	<i>SD</i>	<i>t</i>
Prosocial behavior	Employed mothers	97	2.89	.61	.22
	Unemployed mothers	83	2.87	.68	
Positive emotion	Employed mothers	97	2.98	.68	-.44
	Unemployed mothers	83	3.02	.67	
Peer relations	Employed mothers	97	3.00	.64	.86
	Unemployed mothers	83	2.91	.63	
Ego strength	Employed mothers	97	2.90	.69	1.66
	Unemployed mothers	83	2.72	.74	
Adaptation of daily tasks	Employed mothers	97	3.27	.52	.09
	Unemployed mothers	83	3.26	.56	

### 3. 보육교사의 특성(경력, 연령, 학력)에 따른 영아의 초기적응

#### 1)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9와 같다. 어린이집 적응 영역 중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에서는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과에 대한 적응은 6년 이상이 3.35, 1년에서 6년 미만이 3.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보육교사의 경력이 6년 이상일 때는 1년에서 6년 미만인 경우보다 영아들의 일과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6년 이상의 교사 경력을 가진 경우, 그보다 적은 경력을 지닌 교사에 비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영아들의 일과 적응능력이 높음을 보여준다.

#### 2) 보육교사 연령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변량 분석 및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10과 같다. 어린이집 적응 영역 중 자아강도와 일과에 대한 적응에서는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는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22세 이상에서 28세 미만과 28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이 모두 2.96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22세 이상에서 28세 미만과 28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이 모두 2.96으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감정은 28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이 3.16, 22세 이상에서 28세 미만이 2.95, 35세 이상이 2.80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4.65, p < .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래관계

<Table 9> The difference in the infants' early adaption according to their teachers' careers

Variable	Teacher's career	<i>N</i>	<i>M</i>	<i>SD</i>	<i>t</i>
Prosocial behavior	From 1 year to 5 year	89	2.87	.61	-.22
	6 year and over	91	2.89	.68	
Positive emotion	From 1 year to 5 year	89	2.93	.65	-1.32
	6 year and over	91	3.07	.70	
Peer relations	From 1 year to 5 year	89	2.93	.62	-.48
	6 year and over	91	2.98	.66	
Ego strength	From 1 year to 5 year	89	2.73	.64	-1.65
	6 year and over	91	2.91	.77	
Adaptation of daily tasks	From 1 year to 5 year	89	3.17	.50	-2.25*
	6 year and over	91	3.35	.56	

\**p* < .05.

<Table 10> The difference in the infants' early adaption according to their teachers' ages

	Teacher' age	<i>N</i>	<i>M</i>	<i>SD</i>	<i>F</i>	<i>Scheffé</i>
Prosocial behavior	From 22 year to 27 year(a)	52	2.96	.63	3.85*	a, b > c
	From 28 year to 34 year(b)	78	2.96	.60		
	35 year and over(c)	50	2.67	.67		
	Total	180	2.88	.64		
Positive emotion	From 22 year to 27 year(a)	52	2.95	.74	4.65*	a, b > c
	From 28 year to 34 year(b)	78	3.16	.59		
	35 year and over(c)	50	2.80	.68		
	Total	180	3.00	.67		
Peer relations	From 22 year to 27 year(a)	52	3.09	.64	3.51*	a, b > c
	From 28 year to 34 year(b)	78	2.99	.57		
	35 year and over(c)	50	2.77	.71		
	Total	180	2.96	.64		
Ego strength	From 22 year to 27 year(a)	52	2.79	.76	2.77	
	From 28 year to 34 year(b)	78	2.95	.66		
	35 year and over(c)	50	2.65	.73		
	Total	180	2.82	.71		
Adaptation of daily tasks	From 22 year to 27 year(a)	52	3.22	.52	.38	
	From 28 year to 34 year(b)	78	3.30	.49		
	35 year and over(c)	50	3.25	.63		
	Total	180	3.26	.54		

\**p* < .05.

는 22세 이상에서 28세 미만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8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이 2.99, 35세 이상이 2.77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F = 3.51, p < .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육교사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다른 군에 비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35세 이상이 된 보육교사의 경우, 자신보다 연령이 낮은 교사에 비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등의 적응능력이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 3) 보육교사 학력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11과 같다.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

에 대한 적응의 모든 영역들에서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보육교사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수준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특성(성별, 월령, 보육기관 경험 기간)에 따라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영아의 성별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적응을 잘한다고 한 연구들(Kim, 2009; Kim, & Moon, 2011; Yang, 2010)과는 상이하지만,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들(Baek, 1996; Lee, 2010;

<Table 11> The difference in the infants' early adaption according to their teachers' academic backgrounds

Variable	Teacher's academic background	<i>N</i>	<i>M</i>	<i>SD</i>	<i>t</i>
Prosocial behavior	Below college grades	130	2.83	.64	-1.46
	Above university grades	50	2.99	.63	
Positive emotion	Below college grades	130	3.01	.69	.34
	Above university grades	50	2.97	.63	
Peer relations	Below college grades	130	2.93	.63	-.98
	Above university grades	50	3.04	.67	
Ego strength	Below college grades	130	2.83	.67	.31
	Above university grades	50	2.79	.84	
Adaptation of daily tasks	Below college grades	130	3.26	.53	-.30
	Above university grades	50	3.28	.57	

Lee & Cho, 2009; Oh, 2001)과는 일치한다. 따라서 본 결과에 근거할 때 영아들을 담당한 보육교사는 영아들의 초기적응 시 남아, 여아의 구별없이 애정을 가지고 영아들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월령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정도에서는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6개월 이상의 집단이 31개월 이상에서 36개월 미만의 집단 및 12개월 이상에서 31개월 미만의 집단에 비해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영아의 연령별로 적응수준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한 Yang(201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영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에서의 적응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들(Baek, 1996; Kim, 2009; Kim, & Moon, 2011; Lee & Cho, 2009; Oh, 2001)과는 상통한다. 특히 본 결과에서는 영아가 36개월 이상인 경우 이전에 비해 적응능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 중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영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또래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기술이 점차 발달되면서 36개월 이상이 되면 기관 적응능력이 이전에 비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36개월 이상은 영아기(0~2세)가 아닌 유아기(3~5세)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보다 정확히 해석한다면, 만 2세 미만의 영아들과 만 3세 초기의 유아들 간에 기관 적응능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친사회적 행동은 영아기부터 유아기 초기까지 점차적으로 발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만 3세 이전의 영아들의 경우 낯선 환경에 친숙해지고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영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발달되는 또래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들을 민감히 파악 및 격려해줌으로써 영아의 기관적응을 지원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는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기(Kim, 2008) 때문이다.

보육기관 경험기간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 정도에서는 하위영역 중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에 있어 7개월에서 13개월 미만의 보육기관 경험을 지닌 영아들이 1개월에서 7개월 미만, 그리고 13개월 이상의 보육기관 경험을 지닌 영아들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보육기관 경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보다 1년 이상 일 때 적응을 더 잘한다는 Baek(1996)의 연구결과와 차별되는 것으로, 영아의 보육기관 적응에 있어서는 적절한 시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아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영아가 이전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시점(7개월 이상에서 13개월 미만)에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영아의 안정적 적응에 보다 도움이 되리라 본다.

둘째, 어머니의 특성(양육태도, 취업유무)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초기적응 점수에서 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한 Yang(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 연구결과들(Choi, 2011; Kim, 2009;

Kim, & Moon, 2011; Lee, 2004)과는 차이가 있다. 갈수록 영아의 어린이집 취원율이 높아지고 있고 취원의 시작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영아들은 기관적응에 있어 부모보다 오히려 보육교사의 영향력을 더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 이외에 다른 변인들, 예를 들어 보육교사의 특성이나 영아 개인적 특성 등이 보다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아의 기관적응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S대(2009)은 영아, 어머니, 보육교사의 특성 중 영아의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 바 있다.

어머니의 특성 중 취업유무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어린이집에 보다 잘 적응한다는 Kim(2009)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Jang(200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영아의 초기 기관적응을 돕기 위한 가정-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및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보육교사의 특성(경력, 연령, 학력)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교사의 교육경력을 1년에서 6년 미만과 6년 이상의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에 적응의 하위영역 중 일과에 대한 적응에 있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교사의 경력이 6년 이상일 때는 영아의 일과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지만, 1년에서 6년 미만일 때는 영

아의 일과에 대한 적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보육교사의 경력이 갈수록 영아가 보육시설에서 적응을 잘하고, 특히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며 교사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따른다고 한 Baek(1996)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통한다. 본 결과에 근거할 때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영아가 어린이집 일과 속의 상황이나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일과에 대한 적응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경력이 많은 교사(6년 이상)가 영아반을 맡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경력이 적은 교사가 맡게 될 경우 영아의 일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Cho(2009)은 영아반 초임교사들이 보살핌 위주의 교사역할, 영아보육에 대한 지식 및 적응능력의 부족,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열악한 보육환경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육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영아반을 처음 맡게 되는 보육교사인 경우에는 기관에서 적응관련 교사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에서는 22세 이상에서 28세 미만, 28세 이상에서 35세 미만, 35세 이상의 세 군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적응의 하위영역 중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사의 연령이 22세 이상에서 28세 미만과 28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일 때는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수준이 높지만, 35세 이상일 때는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의 하위영역 중에서 영아의 일과에 대한 적응만 더 높게 나타난 Hyun과 Tae(2000)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며, 교사의 연령에 따라 영아의 적응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Baek(1996)의 연구 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35세 이상의 교사들에 비해 22세 이상에서 28세 미만과 28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의 교사들이 지도하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및 또래관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세 이상의 교사들이 지도하는 영아들은 다른 군에 비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연령이 많고 교사경력이 적은 경우에는 영아들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지도에 관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경력교사와의 팀티칭 등의 교실운영을 통해 영아의 기관적응을 돕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에 비해 영아들이 보육기관에서 협동을 잘하며, 질서를 잘 지키고, 적응을 잘한다는 Hyun과 Tae(2000)의 연구결과와 차별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결과는 교사의 학력에 따라 영아의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Baek(1996)의 연구결과와는 상통한다. 이에 근거할 때 영아의 적응에 있어 보육교사의 학력보다는 연령이나 경력이 의미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학력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기관에서 영아들과의 현장경험을 충분히 쌓아가면서 교사재교육 등을 통해 자신을 개발해나간다면 영아의 초기적응을 보다 잘 지원해주는 교사로 발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있어 영아의 월령과 보육기관 경험기간, 보육교사의 경력과 연령이 의미있는 변인이므로, 보육기관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영아적응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아의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월령별 단계적 적응지도를 할 수 있고, 이전 보육기관 경험기간을 파악하여 영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적응하도록 개별적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연령, 경력)을 고려해 적응관련 교사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도 의미있으리라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권과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영아들에 국한되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소속된 어린이집 유아들과 부모들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후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변인을 어머니로 제한하였지만, 점차 부자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부모변인을 보다 확장하여 주양육자와 영아의 초기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셋째,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영아 초기지도과정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Kim(2009)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시설 유형별로 영아적응과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초기적응수준 및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살펴보았으나, 이에 대한 질적연구가 추후에 병행된다면 영아의 적응관련 다양한 변인들을 심도 있게 밝혀내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육교사의 연령과 경력은 정적상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35세 미만), 그리고 경력이 높을수록(6년 이상) 영아의 적응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보육교사가 될 경우 23~24세 정도에 초임이 되고 29~30세 정도에 6년 정도

의 경력을 갖게 된다. 본 결과에 비추 본다면 30~35세 정도의 보육교사가 6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을 때 영아의 적응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두 변인이 영아의 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Baek, K. (1996). A study on children's adjustment to full-time daycare cen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 H. (2007). Understanding the difficulties and adjustment of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1(2), 237-262.
- Choi, J. (2011). Correlation of infant's initial adaptation to child care center with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aring stress. *Research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te Administration*, 15(3), 77-100.
- EBS News (2010.12.03). 보육시설 이용 늘었지만, 육아부담은 여전.  
[http://www.ebs.co.kr/actions/TvSubIntro?menu\\_id=tv&menu\\_div\\_code=tv&service\\_type\\_code=3063006](http://www.ebs.co.kr/actions/TvSubIntro?menu_id=tv&menu_div_code=tv&service_type_code=3063006)
- Fernandez, M. T., & Marfo, K. (2005). Enhancing Infant-Toddler Adjustment during Transitions to Child Care : A Screening and Intervention Tool for Practitioners. *Zero to Three*, 25(6), 41-48.
- Hea Y. (2010). Mother's self-differenti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justment of the infant daycare centers.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 Hyun, On., & Tae, J. (2000). Quality of child care environment and toddler's adjustment in child care centers - based on child care centers in Inche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3), 25-42.
- Jang, E. (2008).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toddlers' temperament, preceding education and employment of a mother on problem behaviors in initial adapting at day care centers. *Research of Child Care Assistance*, 3(2), 33-50.
- Jang, H.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ring attitude of a mother and her child's initial adapting behavior at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Jewsuwan, R., Luster, T., & Kostelin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 Jun,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temperament and early adjustment in day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E. (2010). The influence of toddler's disposition and teachers' guidance techniques upon toddler's early adaptation to edu-care centers.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 Kim, H. (2009). Infant early adjustment guidance

- by child care center type.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0(2), 131-157.
- Kim, H. (2009). Maternal employment and parenting in relation to infant adjustment in daycare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 Lee, J. (2010). The influence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of infant's on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 Education*, 6(1), 47-65.
- Kim, K. (2004). Study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in accordance with their age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 Kim, M. (2008). Peer relationships between newly enrolled toddlers and those with one years previous experience at daycare center in transitional period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5(3), 25-44.
- Kim, M., & Moon, H. (2011). Infants' Social-Emotional Adjustment within a Childcare Context of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31(4), 487-502.
- Kim, H. (1995). The relations between the children's temperament perceived by mother and teacher and their adjustment and behavior in the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B. (2004).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infant's adjustment in day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H., & Cho, H. (2009). The influence of infants' individual variables and child care environment on infants' early adaptation in child care centers. *Child Education*, 18(2), 179-192.
- Lee, M. (2010). Difference in playfulness and adjustment to nursery of two-year-old toddlers according to teacher-infant attachment security and their child care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Lee, 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nurturing attitudes and infant's personal variables and early adoption in child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Lim, M., & Kang, S. (2007). A study on the early adaptation of toddlers in child-care center.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7(4), 1-32.
- Oh, C.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attachment security and early adjustment in day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E. (2000).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infant's temperament and adjustable/inadjustable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Taeju-Hyosung, Taegu, Korea.
- Seo, S. (2009). A study of influential variables on infant's adjustment behavi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s : emphasis on infant development, temperament, teacher-infant interaction, maternal beliefs about parenting and infant care as well as

- maternal.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6(4), 259-288.
- Shin A. (2011). Relation between the Early Adaption of Babies Aged 1 to 2 in the Child-Care Centers and Personal Temperament or Playfulnes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 Smith, P.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 Son, I. (200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hildren's adaptation in kindergart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University, Chonbuk, Korea.
- Song, H. (2007). Relationship among temperament, daycare-center early adjustment and playfulness in infants at western age 2.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 Won, Y. (1990). A study on the relation of child's tempera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to child's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E. (2010).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infant-teacher attachment, and infant's adjustment in day care center. Ajou University, Gyeonggi, Korea.

---

2012년 2월 27일 투고, 2012년 5월 14일 수정  
2012년 5월 31일 채택